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1. 09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1. 09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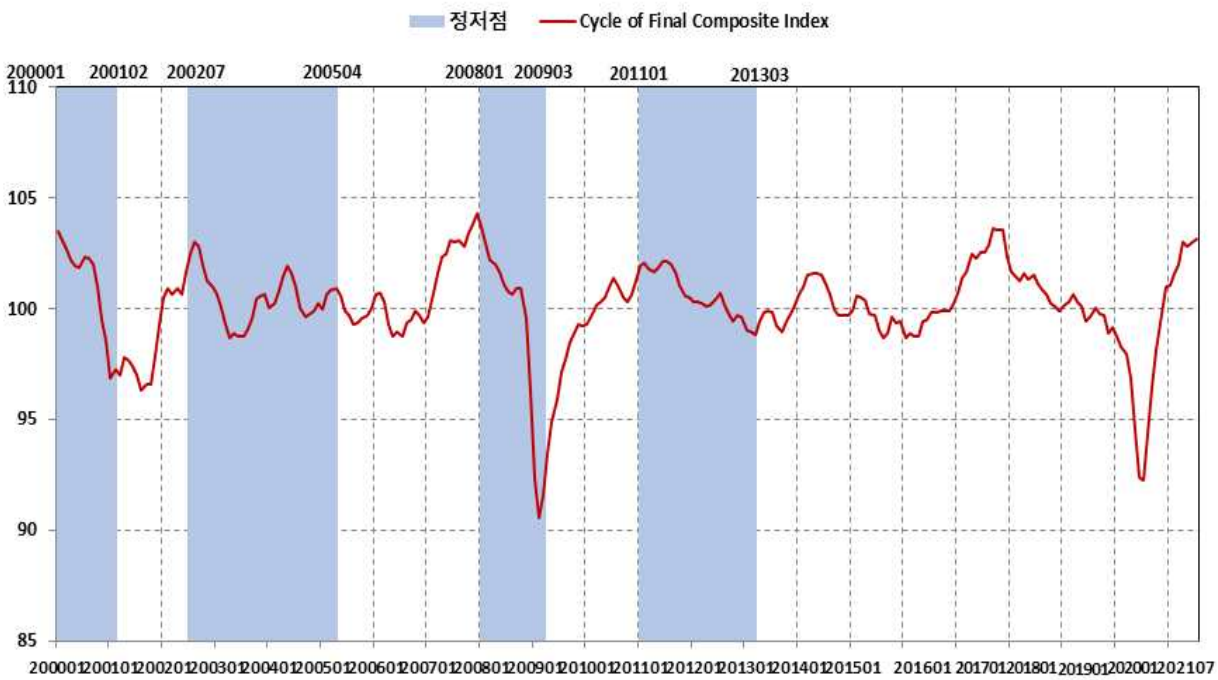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0.07
	BSI	21.09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1.08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1.08
	신용카드사용액	21.06
투 자	자본재수입액	21.08
건 설	건축허가면적	21.08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1.08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08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1.09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07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1.09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1.08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07

경북경제동향 총괄

경 기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난달에 이어 교역 증가세 유지, 제조업 업황도 개선세를 보이며, 소비심리도 소폭 개선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하락
투 자	• 자본재 수입은 수송장비의 수입이 크게 상승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자기기의 수입이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숙박시설, 기계설치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교 역	• 교역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세 지속
고 용	•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지속,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 명), 제조업(−8천 명)은 하락폭 축소, 자영업자수(2천 명) 상승 전환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 폭이 전월(3.0%)대비 다소 축소(2.7%)됐지만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석유류,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물가를 끌어올린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로 물가 상승폭 축소
금 융	•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주택거래량은 3개월 연속 감소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과 어음부도액 소폭 증가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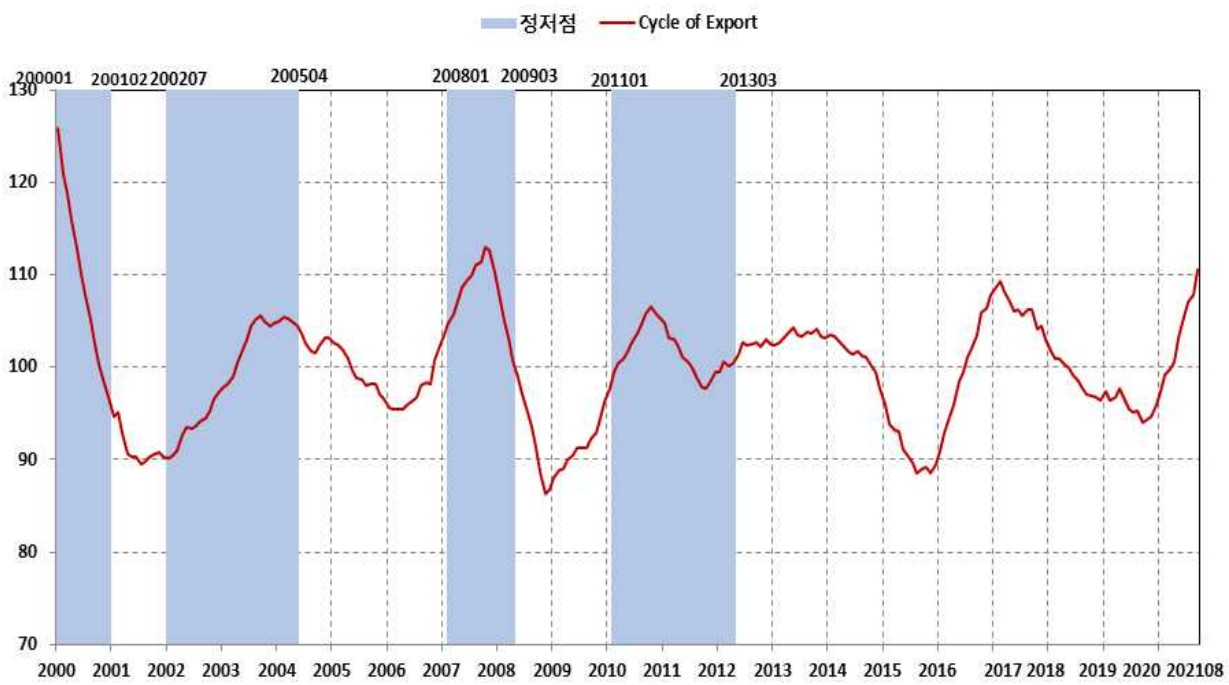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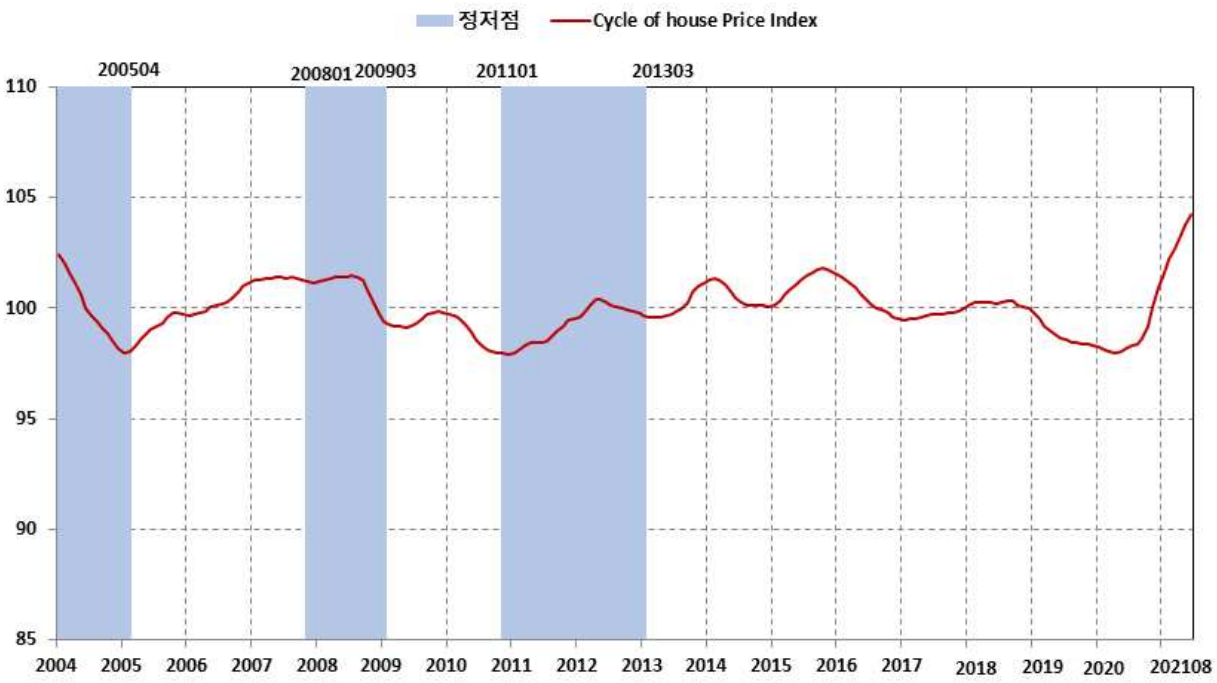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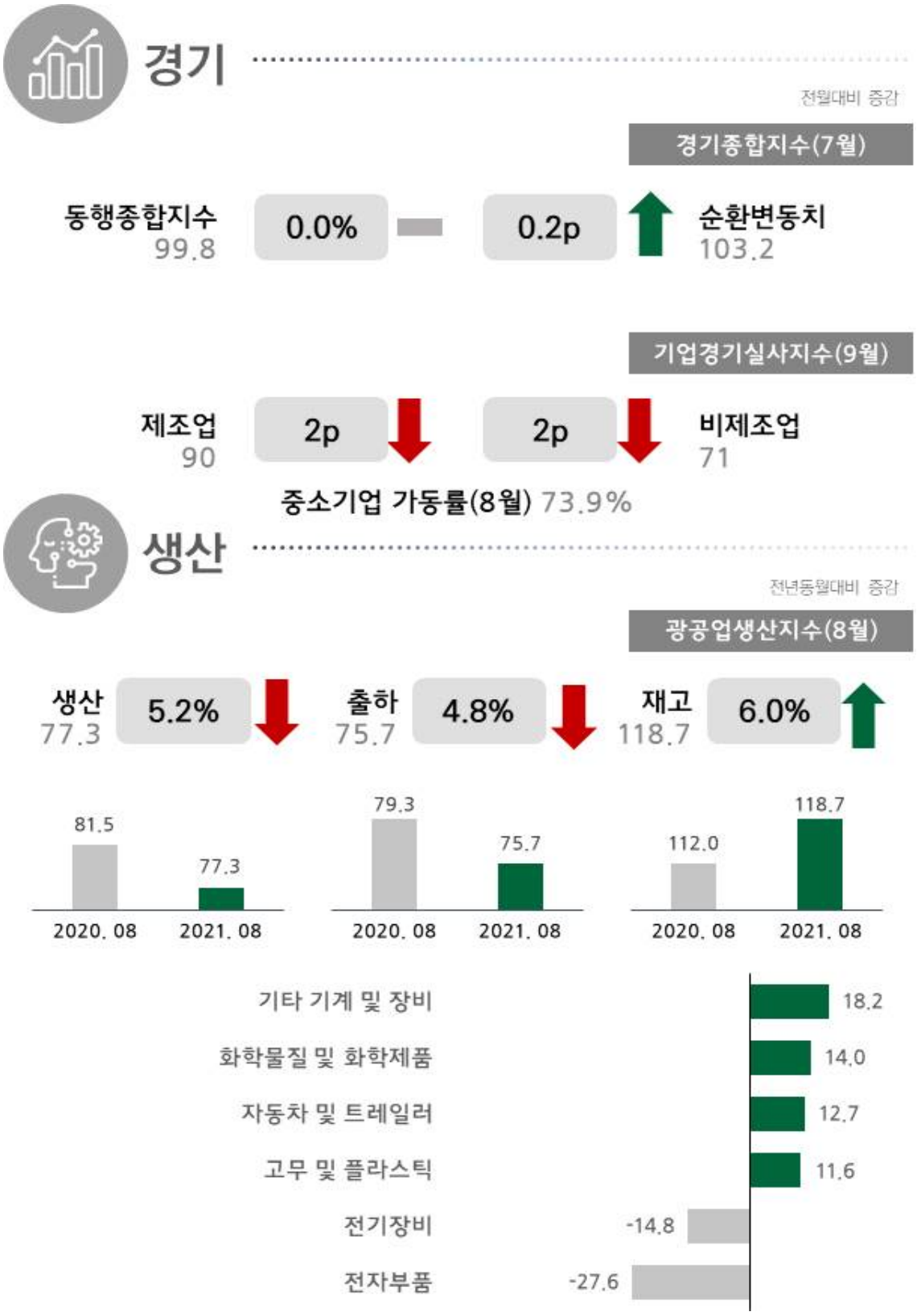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8월)	신용카드사용액(6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8월)
84.6	1조 572억 원	5,364대
3.6% ▼	10.3%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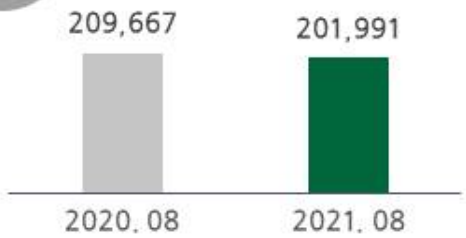


판매 감소

가전제품 | 신발 · 가방 | 화장품 | 기타상품 | 의복 | 오락 · 취미 · 경기용품 | 음식료품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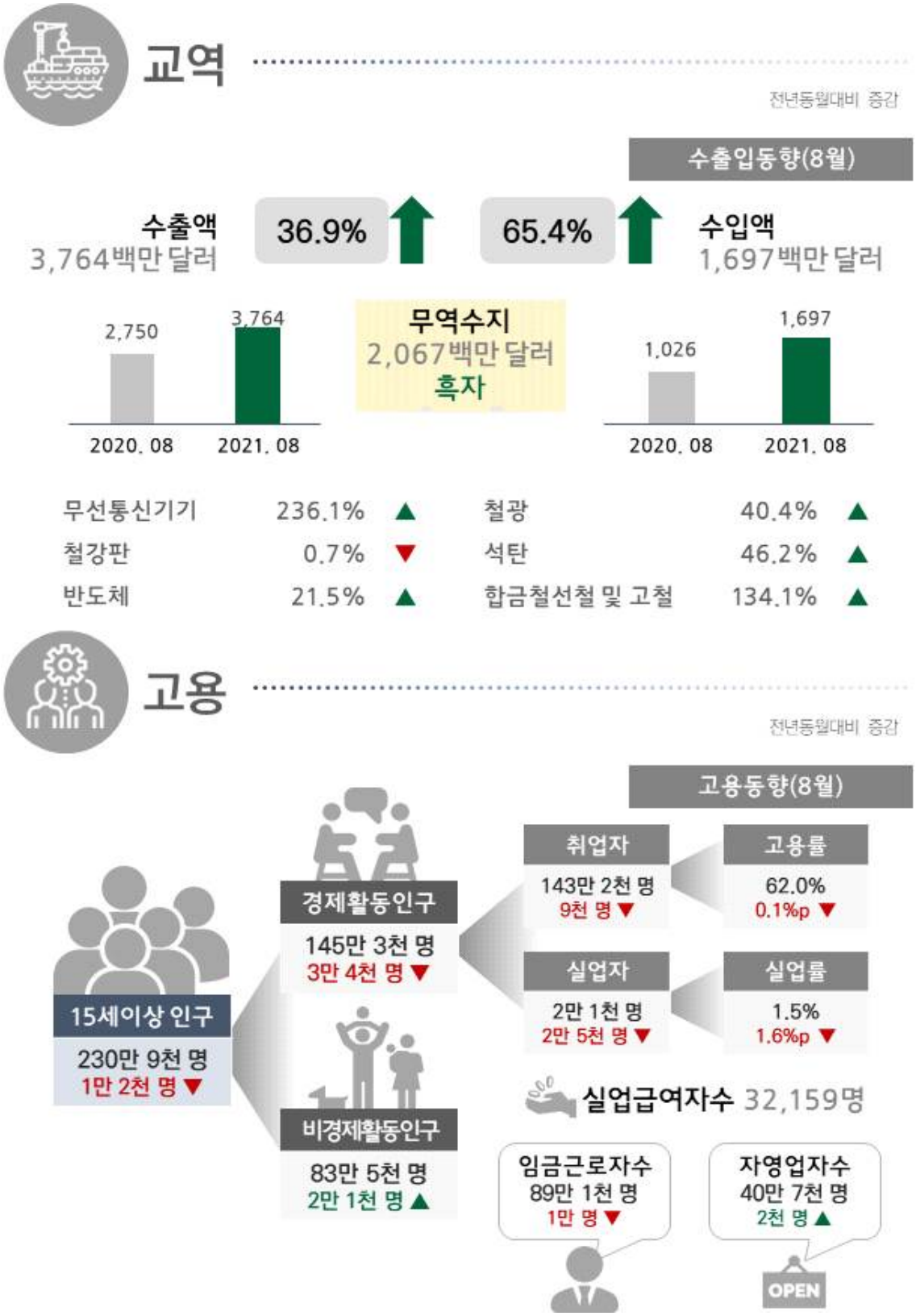
자본재수입액(8월)
201,991천 달러 3.6%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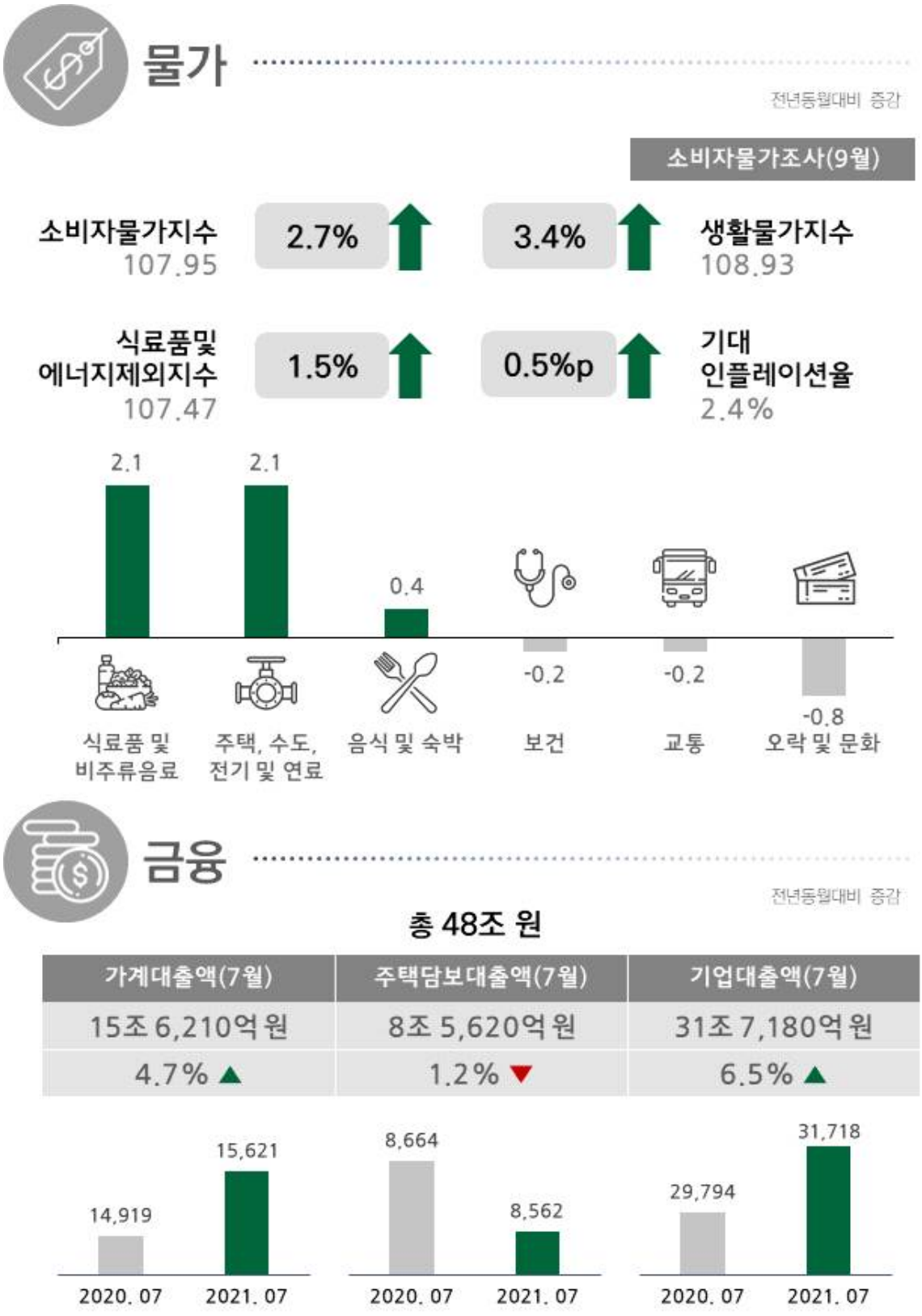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건축물허가면적(8월)	건축물착공면적(8월)	건설수주액(8월)
1,580,294㎡	461,469㎡	5,372억 원
210.0% ▲	37.0% ▼	2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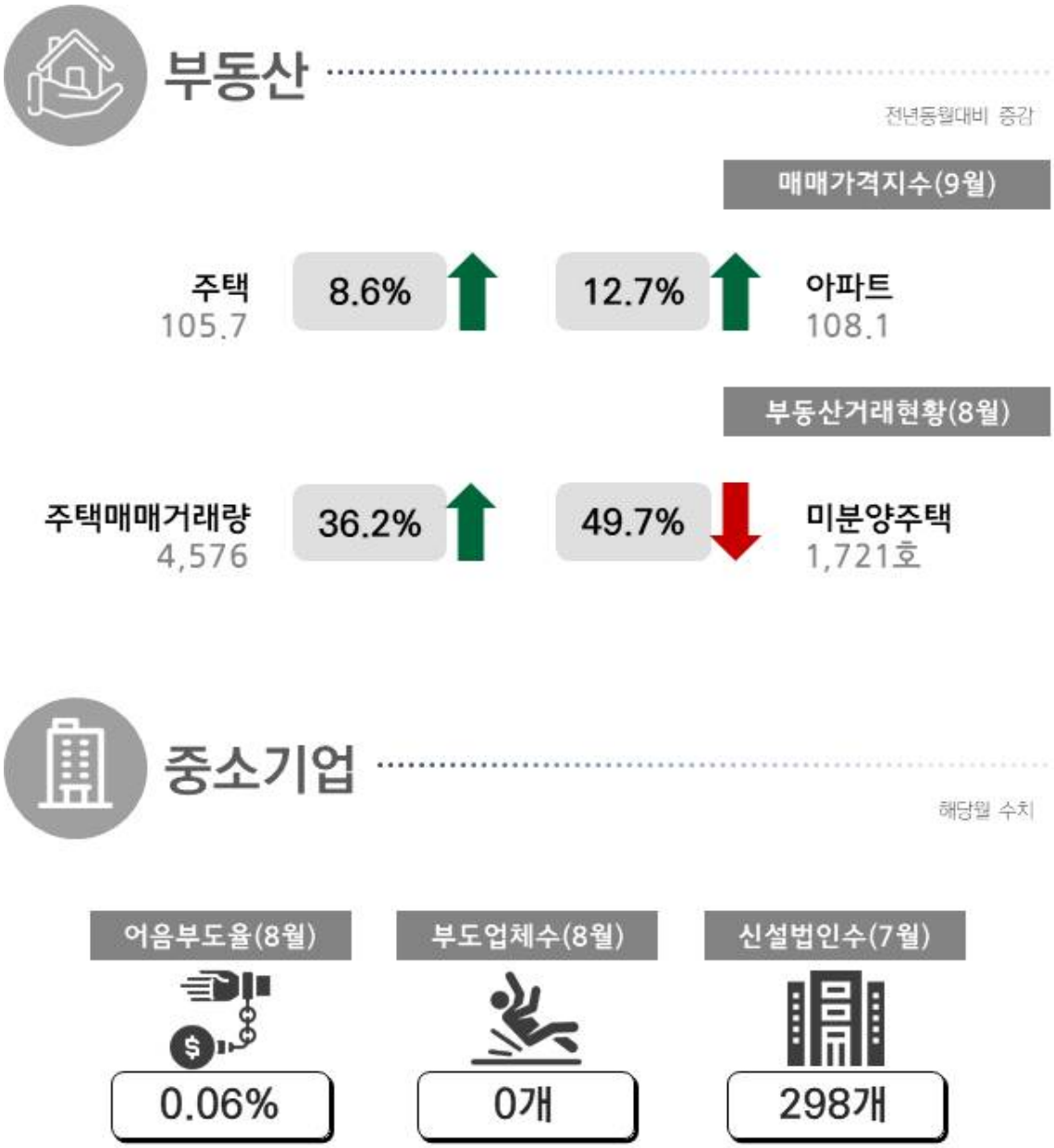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7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보합

○ 동행종합지수는 99.8로 전월대비 보합, 순환변동치는 103.2로 전월차 0.2p 증가

- 구성지표 중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9%),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6.0%)는 증가, 비농가취업자수(−0.1%),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0.6%), 제조업전력사용량(−0.2%), 수출액(실질)(−1.1%), 수입액(실질)(−0.8%)은 감소

7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2%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7.0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전월차 0.1p 증가

- 구성지표 중 수입액(1.2%), 광공업생산지수(0.4%), 서비스업생산지수(0.4%)는 증가, 건설기성액(−1.8%), 소매판매액지수(−0.3%), 내수출하지수(−0.2%)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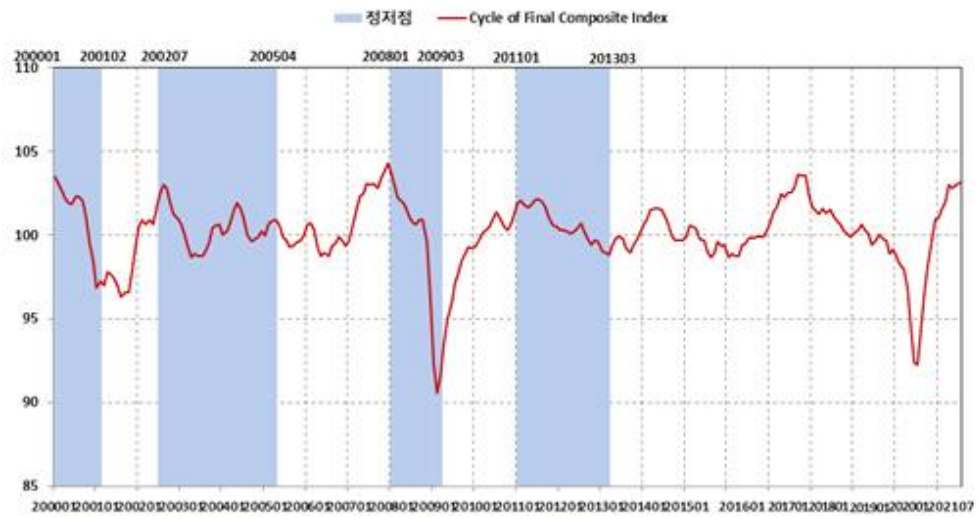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1					
		02	03	04	05p	06p	07p
경북	동행종합지수	98.3	98.7	99.8	99.6	99.8	99.8
	전월대비(%)	1.2	0.4	1.1	−0.2	0.2	0.0
	순환변동치	101.6	102.0	103.0	102.8	103.0	103.2
	전월차(p)	0.5	0.5	1.0	−0.2	0.2	0.2
전국	동행종합지수	114.3	115.1	116.3	116.6	116.8	117.0
	전월대비(%)	0.4	0.7	1.0	0.3	0.2	0.2
	순환변동치	99.7	100.2	101.2	101.2	101.2	101.3
	전월차(p)	0.3	0.5	1.0	0.1	0.0	0.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9월
제조업 BSI,
비제조업 BSI
전월대비 각각 감소

9월 제조업 BSI는 90, 비제조업 BSI는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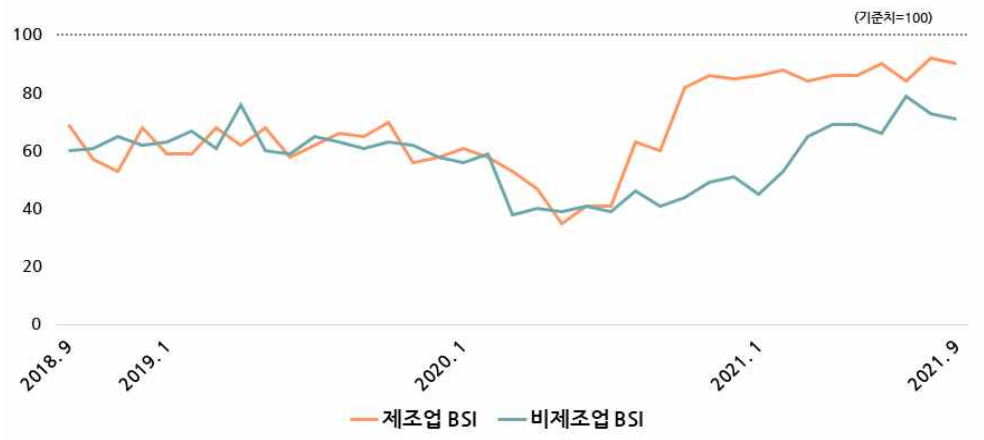
○ 제조업 업황BSI는 90으로 전월대비 2p 감소, 10월 업황 전망BSI는 92로 1p 증가
- 매출BSI는 100으로 전월대비 7p, 10월 전망은 100으로 5p 각각 감소
- 생산BSI는 97로 전월대비 11p, 10월 전망은 101로 2p 각각 감소
- 채산성BSI는 86으로 전월대비 3p, 10월 전망은 88로 2p 각각 감소

○ 비제조업 업황BSI는 71로 전월대비 2p, 9월 업황 전망BSI는 68로 4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78로 전월대비 2p, 10월 전망은 81로 2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9로 전월대비 15p, 10월 전망은 88로 9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제조업 BSI	88 (81)	84 (86)	86 (92)	86 (91)	90 (85)	84 (87)	92 (81)	**90 (91)**	– (92)
비제조업 BSI	53 (47)	65 (56)	69 (67)	69 (72)	66 (65)	79 (70)	73 (77)	**71 (72)**	– (68)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년 9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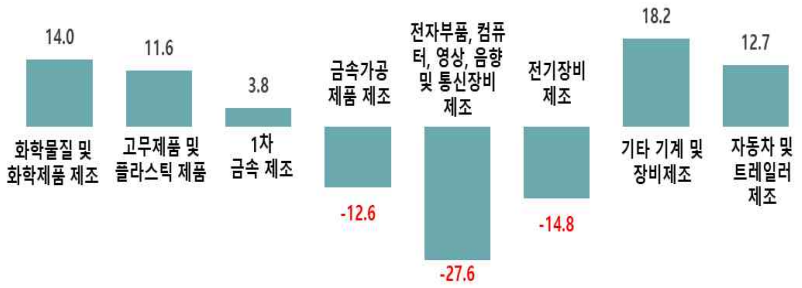
생산

8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재고 증가

광공업생산지수는 77.3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10.3% 각각 하락

○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자부품, 금속가공은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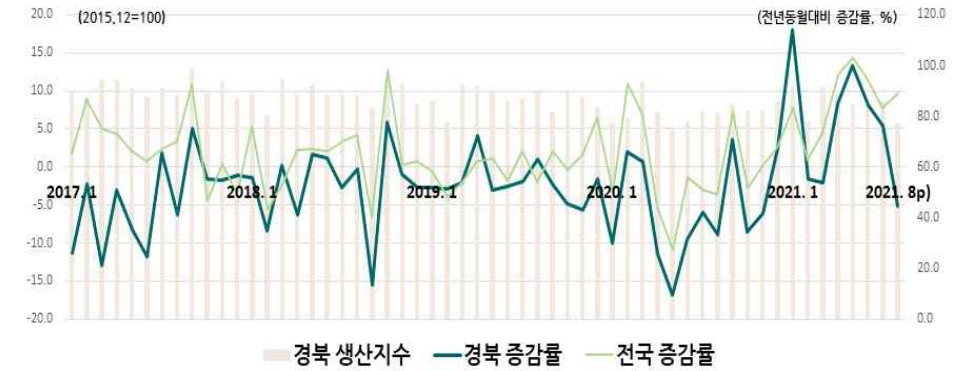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화학제품(14.0%), 자동차(12.7%), 기계장비(18.2%) 등이 증가
- 화학제품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등이 증가, 기계장비는 무한궤도, 금융거래자동화기기, 금형 등,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이 증가
- 전기장비는 태양광모듈, 차량용조명등, 전력선 등이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p	08p
81.9 (−5.9)	78.0 (−1.6)	91.0 (−2.5)	88.4 (8.3)	84.7 (13.4)	84.5 (8.2)	**86.2** **(5.4)**	**77.3** **(−5.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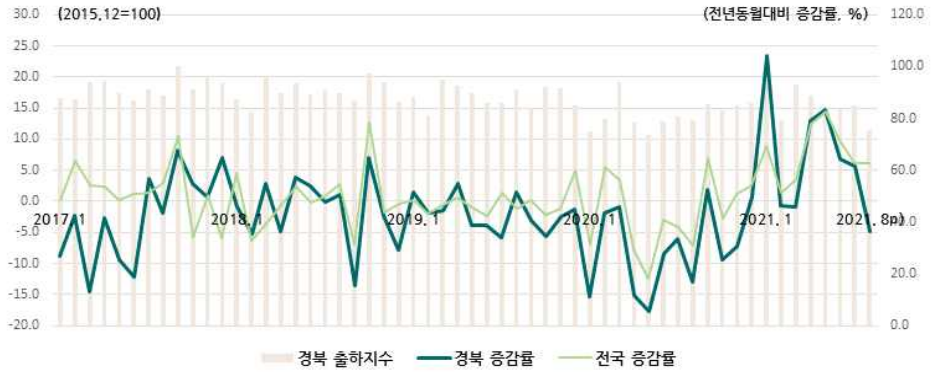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 11.3%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화학제품(21.7%), 자동차(12.2%), 식료품(21.9%)등이 증가, 전자부품(−23.4%), 전기장비(−15.7%), 금속가공(−17.2%) 등은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p	08p
81.6	79.2	92.9	88.6	84.6	84.0	85.1	75.7
(−7.8)	(−0.5)	(−1.2)	(12.9)	(14.6)	(6.9)	(5.7)	(−4.8)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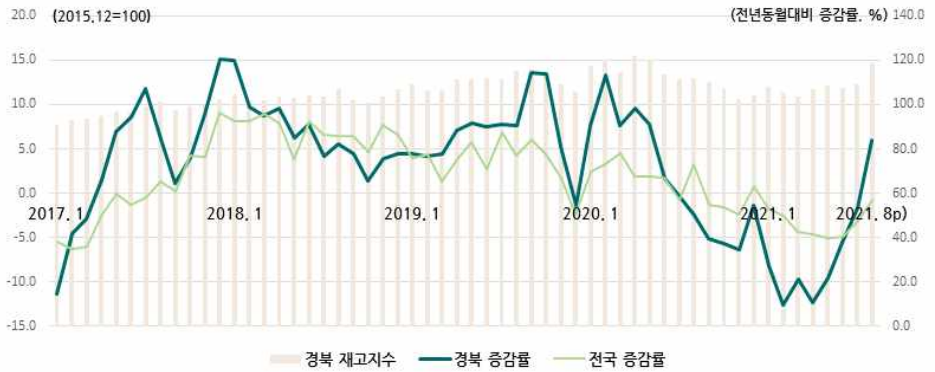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8.6%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전기장비(45.8%), 기계장비(36.7%), 1차금속(7.4%) 등이 증가, 금속가공(−40.8%), 화학제품(−8.8%), 전자부품(−2.6%)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p	08p
104.1	105.2	103.4	106.8	108.7	106.9	109.3	118.7
(−1.4)	(−12.6)	(−9.7)	(−12.2)	(−9.5)	(−5.8)	(−1.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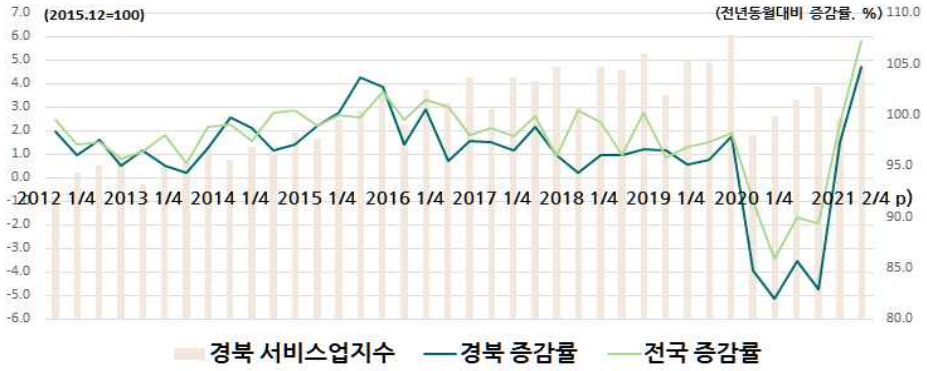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4.9%, 전기대비 5.1% 각각 상승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3/4	4/4	1/4	2/4	3/4	4/4	1/4P	2/4P
105.2	107.9	98.0	99.9	101.5	102.8	99.5	104.6
(0.8)	(1.8)	(-3.9)	(-5.1)	(-3.5)	(-4.7)	(1.5)	(4.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8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8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3.6%, 전월대비 14.0%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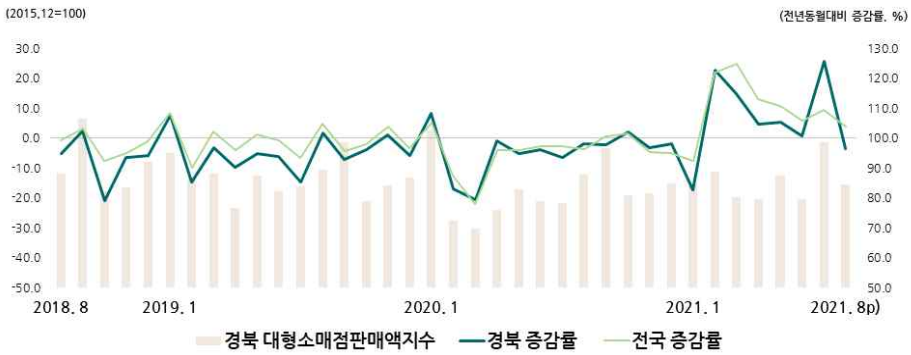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84.6으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5.9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90.4로 전년동월대비 4.2% 하락
- 전년동월대비 가전제품, 신발·가방, 화장품, 기타상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음식료품 모두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p	08p
대형 소매점	82.7 (−4.4)	88.6 (22.7)	80.2 (14.9)	79.5 (4.7)	87.4 (5.4)	79.4 (0.8)	**98.4 (25.7)**	**84.6 (−3.6)**
대형마트	86.1 (−2.4)	92.6 (21.4)	81.1 (7.0)	80.0 (0.9)	88.6 (5.1)	81.4 (0.4)	**103.8 (25.8)**	**90.4 (−4.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6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57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

○ 의료·보건(85.4%), 식료품(21.4%), 오락·문화(14.5%)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금융·보험(−87.2%), 전자상거래·통신판매(−85.9%), 가구·가전(−20.0%)의 사용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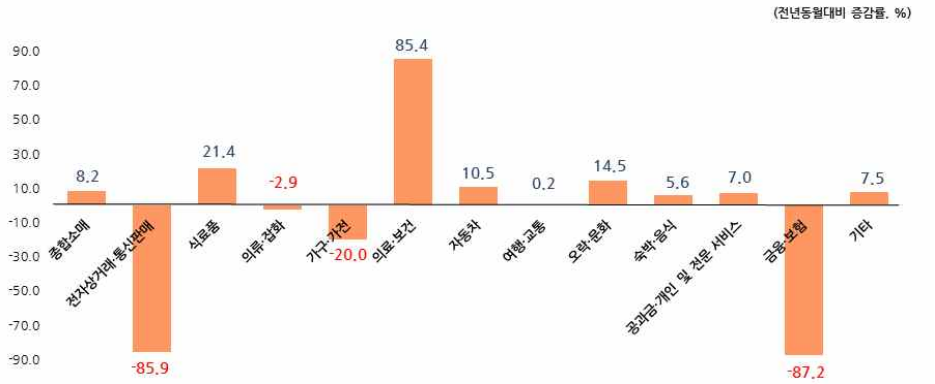
- 종합소매(8.2%)와 숙박·음식(5.6%) 등의 사용액 모두 증가
- 종합소매(8.2%)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7.2%), 슈퍼마켓(13.2%), 대형마트(3.9%)의 사용액은 증가한 반면, 백화점(−11.2%)의 사용액 감소
- 숙박·음식(5.6%) 사용액 중 숙박(32.6%), 음식점(4.4%)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11	12	01	02	03	04	05	06
979.1 (−5.5)	921.9 (−12.6)	896.5 (−13.4)	880.8 (1.5)	1,012.2 (27.5)	1,011.3 (17.8)	1,089.2 (6.3)	**1,057.2** **(10.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8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5,364대로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 시스템반도체–원자재 부족 지속 영향으로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79,482 (6.3)	5,238 (18.2)	7,018 (13.0)	6,950 (5.5)	6,393 (−6.5)	7,276 (−15.1)	7,277 (1.5)	**5,364** **(−0.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2.	5,238	4,026	69	1,090	53
3.	7,018	5,071	125	1,754	68
4.	6,950	5,193	71	1,604	82
5.	6,393	4,802	143	1,350	98
6.	7,276	5,181	138	1,867	90
7.	7,277	4,997	100	2,083	97
8.	5,364	3,912	74	1,299	79

투자

8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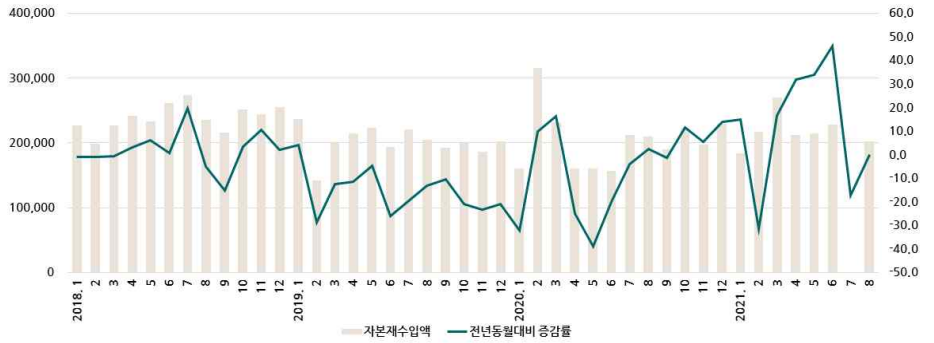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01,991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11.0%), 전기·전자기기(−1.3%)를 제외한 수송장비(6,650.9%), 기타 자본재수입(252.6%)은 증가
- 전기·전자기기 중 메모리 반도체(45.5%)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3%)의 수입은 감소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측정시험기(63.2%), 펌프(59.1%), 광학기기(24.4%)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섬유기계(−46.9%), 금속공작기계(−13.9%)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184,199 (15.1)	216,513 (−31.3)	270,024 (16.6)	211,687 (31.7)	215,085 (33.9)	228,588 (46.1)	211,716 (−17.4)	**201,991** **(−3.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8월 건축물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상승, 건축물착공면적 하락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10.0% 상승한 1,580,294㎡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은 증가,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177.1% 증가한 1,022,132㎡, 상업용은 44.9% 증가한 121,847㎡, 공업용은 7.0% 감소한 114,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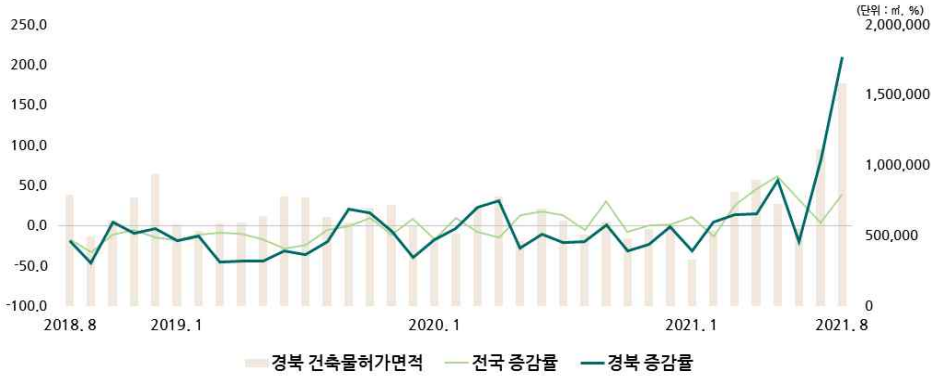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7.0% 하락한 461,469㎡

- 용도별로 상업용은 증가, 주거용,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53.4% 감소한 171,783㎡, 상업용은 7.2% 증가한 90,178㎡,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39.6% 감소한 74,722㎡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1						
	02	03	04	05	06	07	08
건축허가면적	533,422 (4.4)	813,874 (14.0)	894,052 (15.2)	724,581 (56.8)	554,548 (−19.9)	1,110,817 (82.7)	**1,580,294** **(210.0)**
건축착공면적	304,915 (−21.4)	562,272 (−9.1)	1,078,797 (30.2)	919,423 (119.0)	814,452 (47.0)	669,072 (52.9)	**461,469** **(−37.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8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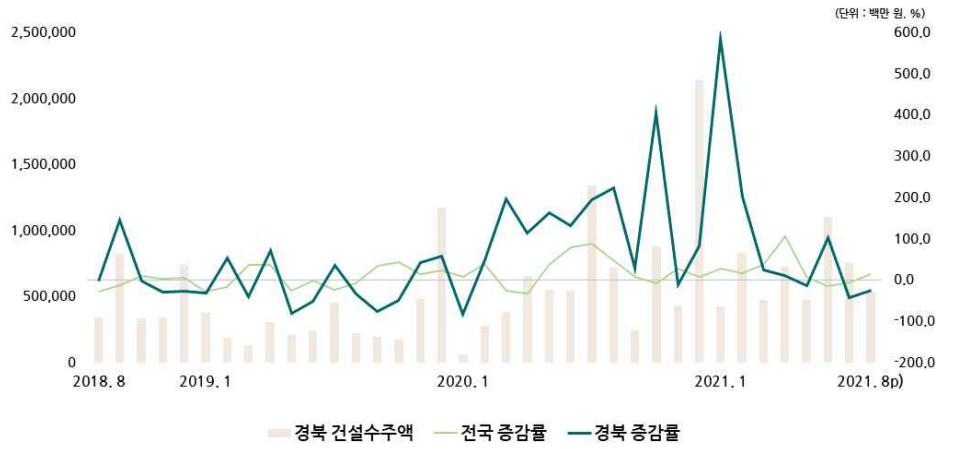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숙박시설, 기계설치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4.9% 하락한 537,151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421,768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0% 하락, 토목부문 115,383백만 원으로 21.9% 상승
- (발주자별) 공공부문 85,520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6% 상승, 민간부문 451,631백만 원으로 29.8%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p	08p
8,227,951	830,451	476,191	726,980	475,282	1,104,897	754,084	537,151
(98.5)	(201.6)	(23.5)	(10.6)	(−14.1)	(103.3)	(−43.8)	(−24.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8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3.764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9%, 수입액은 1,69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5.4%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2,067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236.1%), 철강판(−0.7%), 반도체(21.5%), 광학기기(26%)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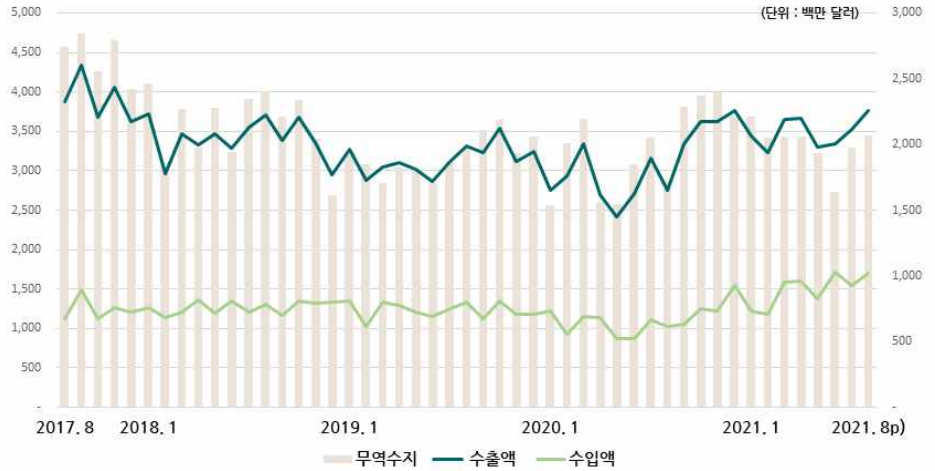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40.4%), 석탄(46.2%), 합금철선철 및 고철(134.1%), 우라늄(1076.8%)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60.8%), 미국(59.6%), 일본(38.74%), 베트남(4%) 순

○ 포항시 8월 화물수송은 4,152,518톤(R/T)으로 외항 3,487,146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						
	02	03	04	05	06p	07p	08p
수출액	3,226 (10.2)	3,650 (9.4)	3,665 (36.0)	3,305 (37.0)	3,344 (23.1)	**3,518** **(11.5)**	**3,764** **(36.9)**
수입액	1,178 (28.8)	1,589 (38.4)	1,605 (40.6)	1,372 (57.5)	1,708 (97.0)	**1,540** **(39.3)**	**1,697** **(65.4)**
무역수지	2,048	2,060	2,060	1,933	1,636	**1,979**	**2,06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8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5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만 4천 명(−2.3%)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5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대비 2.5% 각각 증가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1,478 (−0.7)	1,430 (−2.2)	1,452 (0.5)	1,468 (0.9)	1,480 (−1.1)	1,467 (−2.5)	1,474 (−2.4)	**1,453** **(−2.3)**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취업자 143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 하락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천 명(−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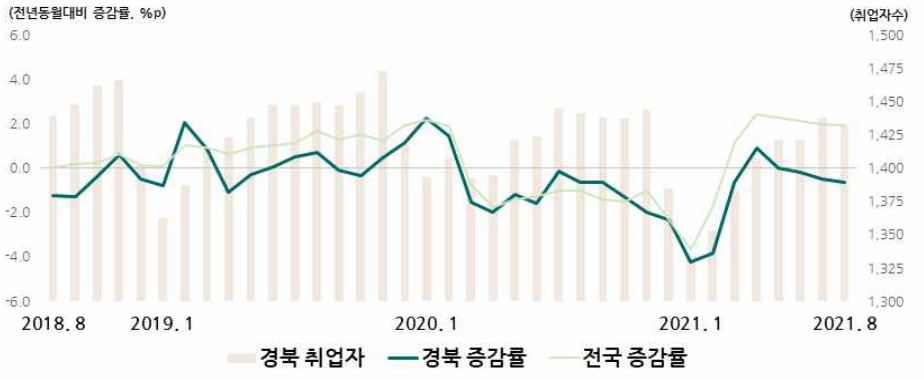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천 명), 농림어업(4천 명)은 증가, 제조업(−8천 명), 건설업(−6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0.6%)은 9대 광역도 중 유일하게 하락

○ 제조업 취업자수는 2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1,418 (−0.8)	1,353 (−3.8)	1,383 (−0.6)	1,408 (0.9)	1,421 (0.1)	1,421 (−0.2)	1,438 (−0.5)	**1,432** **(−0.6)**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8월 고용률 62.0%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 1.5%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62.0%로 전국평균 61.2%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0%로 전국 66.9%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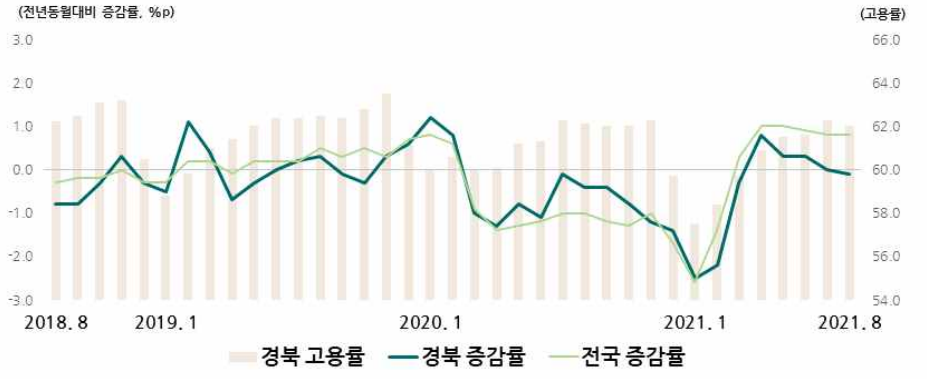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6%p 감소한 1.5%로 전국평균 2.6%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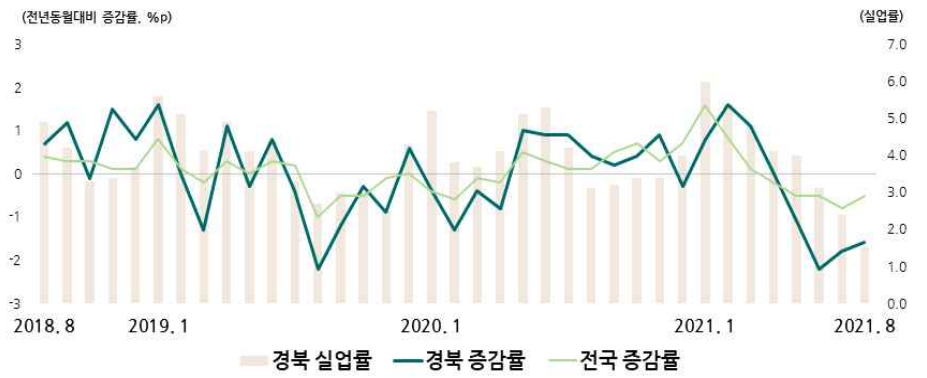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2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p)

구분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고용률	61.1 (−0.6)	58.4 (−2.2)	59.7 (−0.3)	60.9 (0.8)	61.5 (0.3)	61.6 (0.3)	62.3 (0.0)	**62.0** **(−0.1)**
실업률	4.0 (0.1)	5.4 (1.6)	4.8 (1.1)	4.1 (0.0)	4.0 (−1.1)	3.1 (−2.2)	2.4 (−1.8)	**1.5** **(−1.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8월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영업자수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한 89만 1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2%), 임시근로자수(0.9%) 감소, 일용근로자수(10.7%) 증가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6% 하락한 40만 7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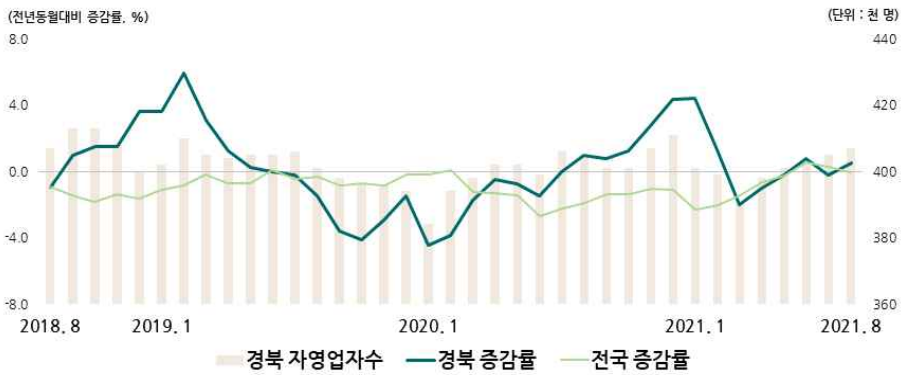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0.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1.9%) 모두 증가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임금 근로자	893 (−1.0)	858 (−5.7)	886 (−0.4)	890 (2.7)	892 (0.4)	887 (−0.5)	896 (−0.5)	**891 (−1.1)**
자영 업자	401 (−0.2)	399 (1.3)	390 (−2.1)	398 (−1.0)	401 (−0.2)	402 (0.7)	405 (−0.3)	**407 (0.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5로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전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2.1%), 음식 및 숙박(0.4%) 등은 상승,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통신, 교육은 보합, 오락 및 문화(−0.8%), 보건(−0.2%) 등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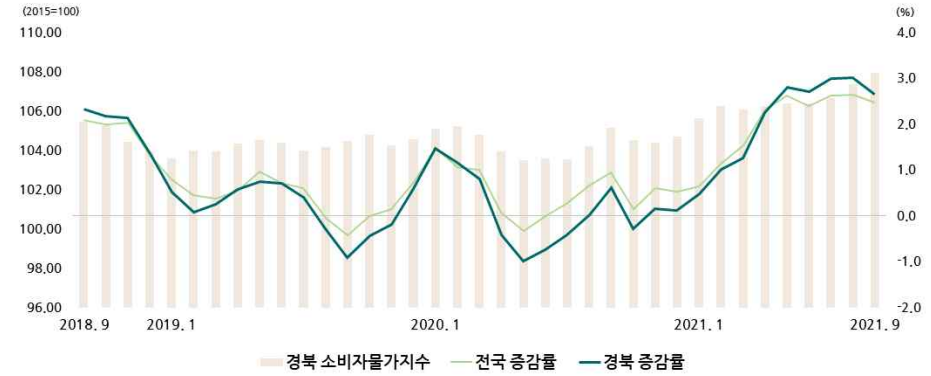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8.93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1.0%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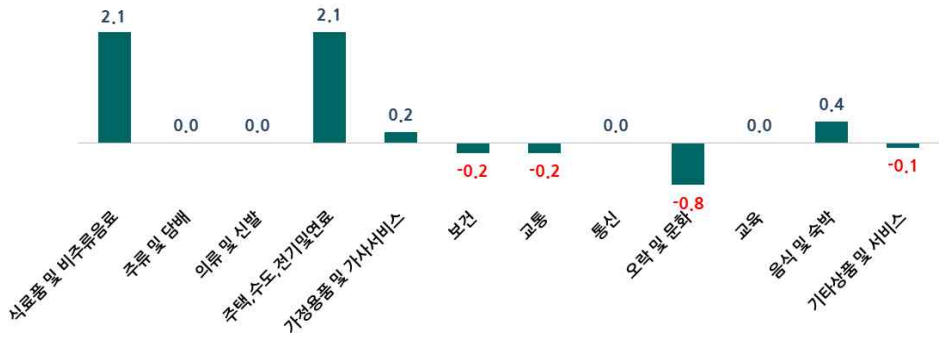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17.77로 전년동월대비 2.6%, 식품이외는 104.21로 3.9%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3	04	05	06	07	08	09
소비자 물가지수	104.39 (0.1)	106.10 (1.3)	106.27 (2.3)	106.41 (2.8)	106.41 (2.7)	106.66 (3.0)	107.35 (3.0)	**107.95 (2.7)**
생활 물가지수	104.29 (−0.2)	106.63 (1.1)	106.67 (2.6)	106.83 (3.6)	106.93 (3.4)	106.97 (4.0)	107.83 (4.1)	**108.93 (3.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7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한 15.6조 원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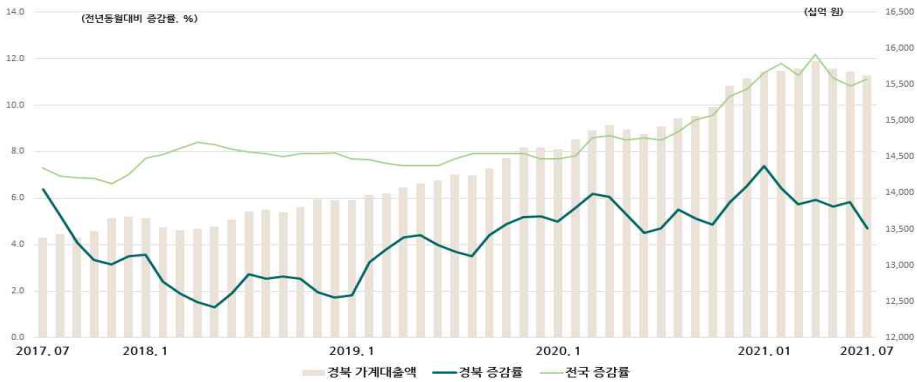
○ 총 대출액 48조 원 중 가계대출은 32.7% 차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증가 지속

7월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주택담보대출 감소세 지속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15,579	15,678	15,692	15,717	15,821	15,717	15,677	**15,621**
(6.5)	(7.4)	(6.4)	(5.7)	(5.9)	(5.6)	(5.8)	**(4.7)**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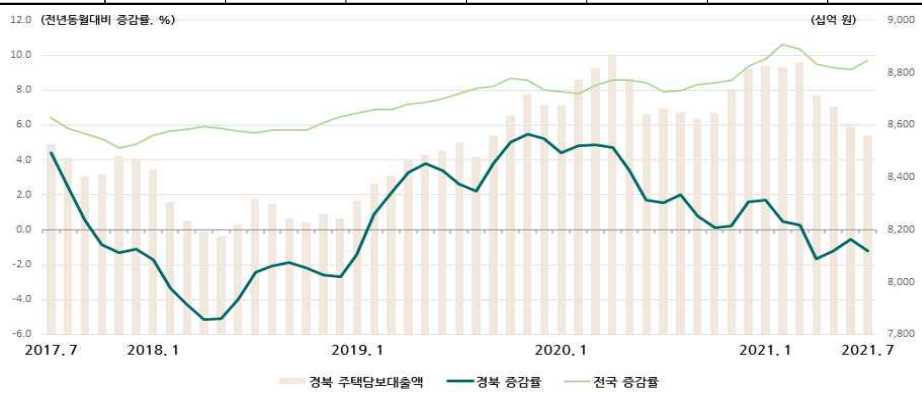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0.4% 각각 하락

○ 총 가계대출 15.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4.8%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8,815	8,827	8,821	8,839	8,713	8,668	8,595	**8,562**
(1.6)	(1.7)	(0.5)	(0.3)	(−1.7)	(−1.2)	(−0.6)	**(−1.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7월 기업대출액은 31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한 31조 원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30,905	31,088	31,227	31,318	31,562	31,615	31,549	**31,718**
(10.8)	(11.9)	(12.0)	(11.4)	(9.6)	(7.2)	(6.5)	**(6.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8.6% 상승한 105.7

- 포항(10.1%), 구미(9.6%), 경산(4.5%)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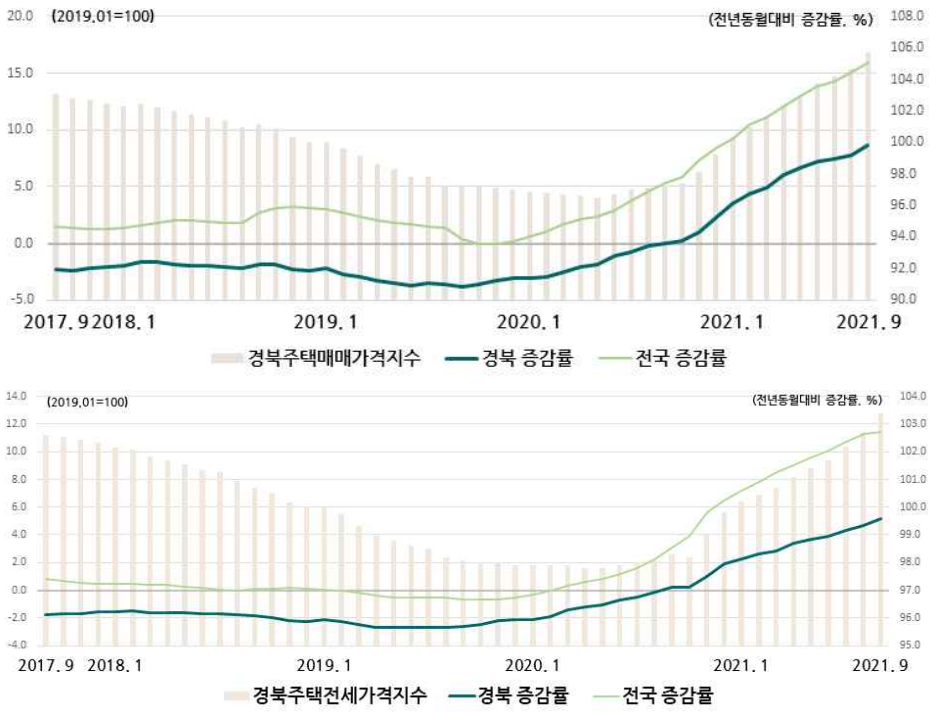
○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한 103.4

- 포항(6.9%), 구미(5.3%), 경산(1.7%)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02	03	04	05	06	07	08	09
매매	101.0 (4.3)	101.5 (5.0)	102.4 (6.0)	102.9 (6.6)	103.7 (7.2)	104.2 (7.4)	104.7 (7.8)	**105.7** **(8.6)**
전세	100.4 (2.6)	100.7 (2.9)	101.1 (3.4)	101.4 (3.7)	101.7 (3.9)	102.2 (4.3)	102.7 (4.7)	**103.4** **(5.2)**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9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9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한 108.1

- 포항(16.9%), 구미(13.9%), 안동(8.8%), 경산(6.4%)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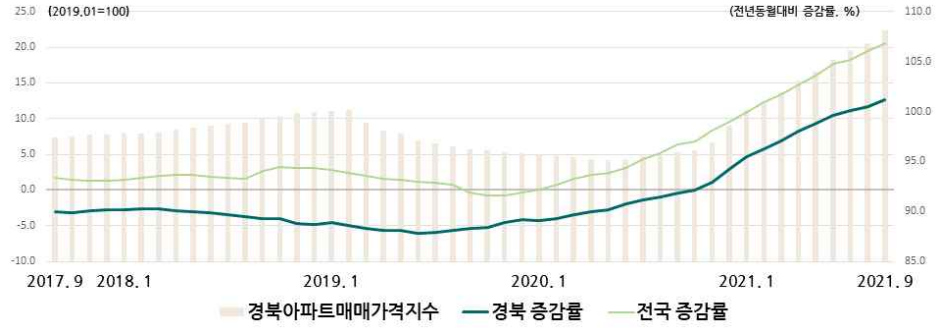
○ 9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3% 상승한 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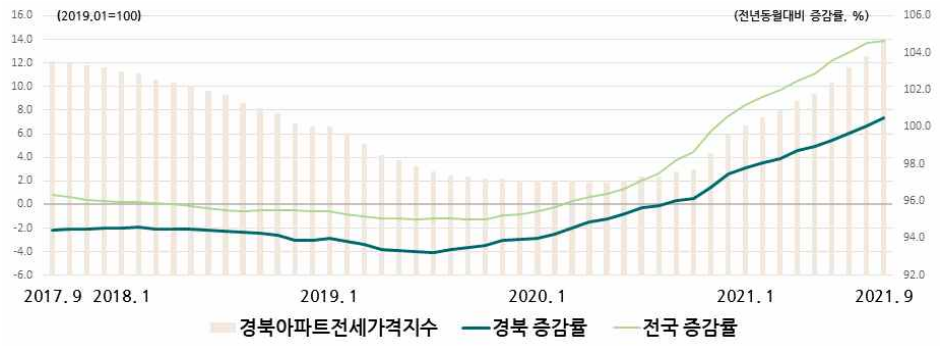
- 포항(11.9%), 구미(7.7%), 안동(3.0%), 경산(2.4%)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02	03	04	05	06	07	08	09
매매	101.1 (5.8)	101.9 (6.8)	103.1 (8.3)	104.0 (9.4)	105.2 (10.5)	106.1 (11.1)	106.8 (11.7)	**108.1** **(12.7)**
전세	100.5 (3.5)	100.9 (3.9)	101.4 (4.5)	101.8 (4.9)	102.4 (5.4)	103.2 (6.1)	103.8 (6.6)	**104.7**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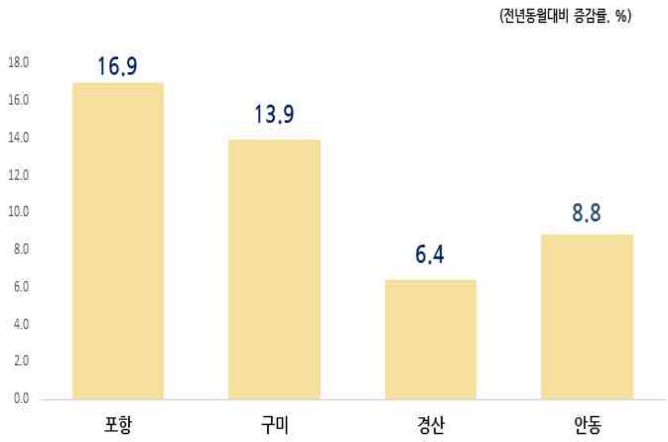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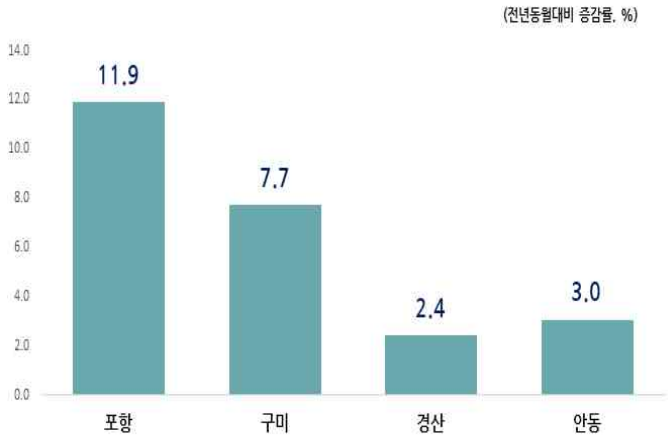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8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상승

○ 주택매매거래량은 4,576호로 전년동월대비 36.2% 상승, 전국도 상승(4.4%)

- 경산(−1.5%)을 제외한 포항(66.5%), 구미(62.5%), 안동(11.9%)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증가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54,138	4,333	5,755	5,216	4,951	4,494	4,329	**4,576**
(56.9)	(7.0)	(76.6)	(69.2)	(23.2)	(−19.4)	(−17.1)	**(36.2)**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8월 미분양주택은 1,721호로 전월대비 36호 감소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천(829호), 구미(274호), 영천(174호), 경주(128호) 순

중소기업

8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6%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전월대비 0.03%p 증가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3%이고, 제주(1.23%), 경기(0.34%), 경북(0.06%), 전북(0.05%), 강원·충남·경남(0.02%), 충북·전남(0.00%)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2.5억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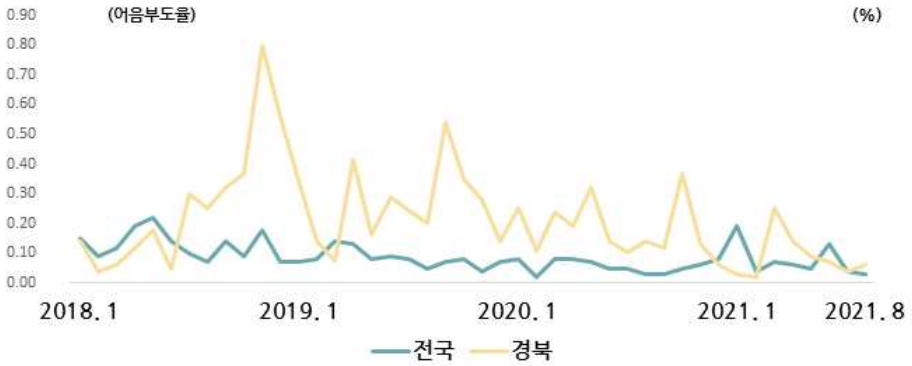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년동월대비 2개 감소

- 총 부도 금액은 8.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억 원 감소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어음부도율	0.03	0.02	0.25	0.14	0.09	0.07	0.04	0.06
부도업체수	0	0	0	1	1	1	0	0
	0	−1	−1	−3	−1	1	0	−2
신설법인수	374	319	363	322	280	376	298	−
	14	−32	55	−14	−16	−37	−1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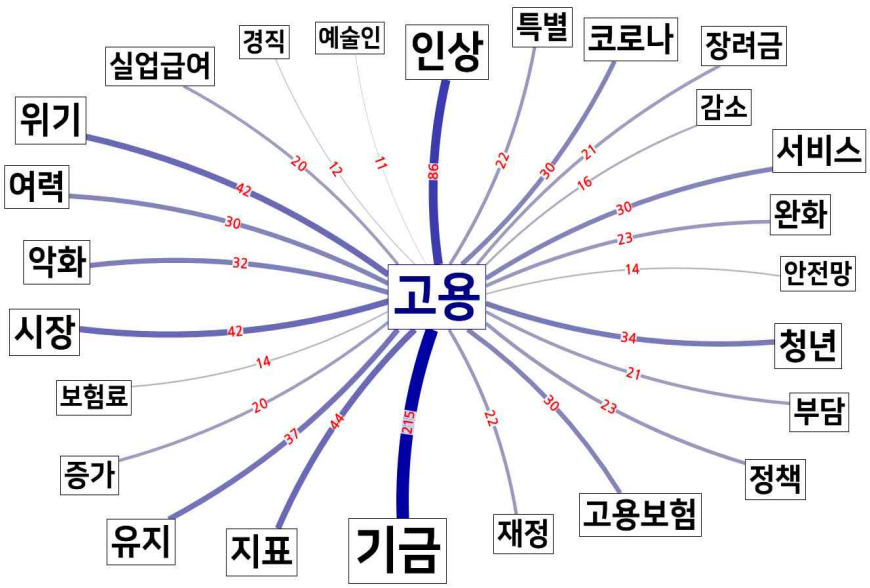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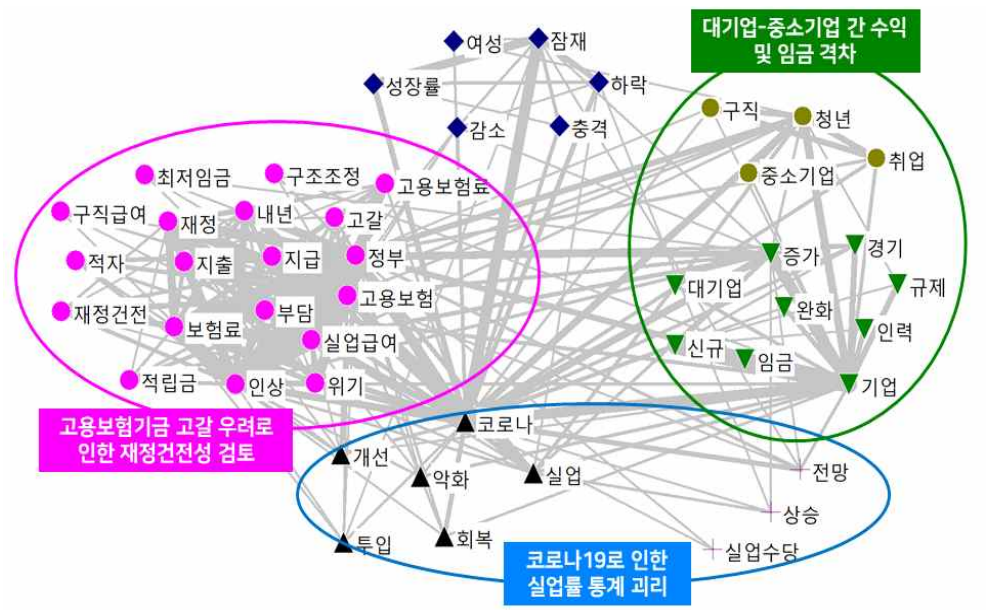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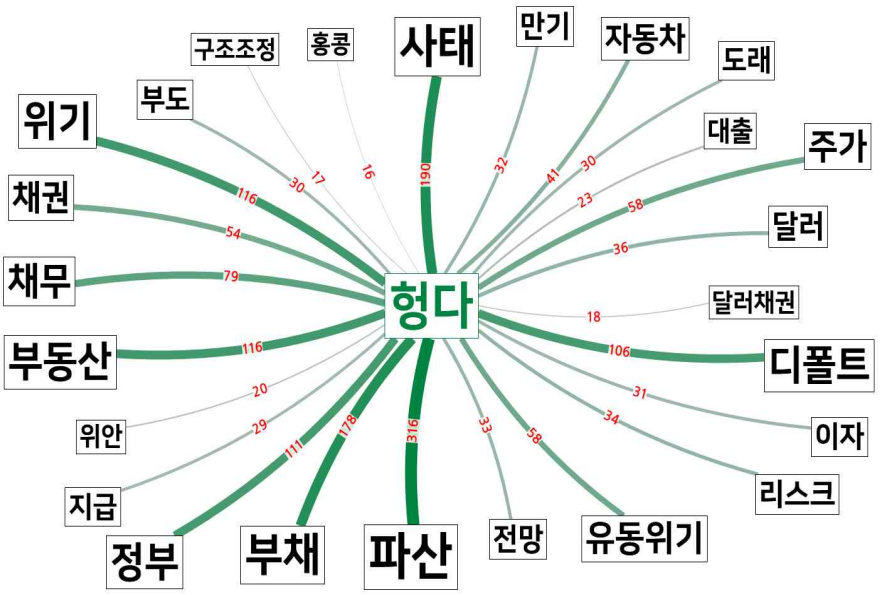


주요단어 : 기금(215), 인상(86), 위기(42), 청년(34), 악화(32) 등
실업 확대로 고갈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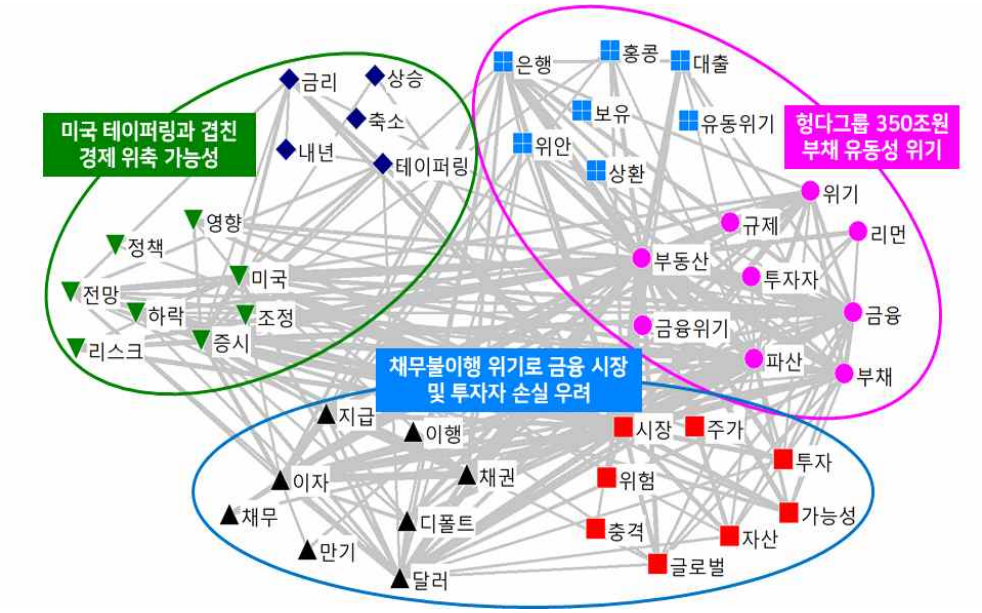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고갈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익 및 임금 양극화에 관한 내용

헝다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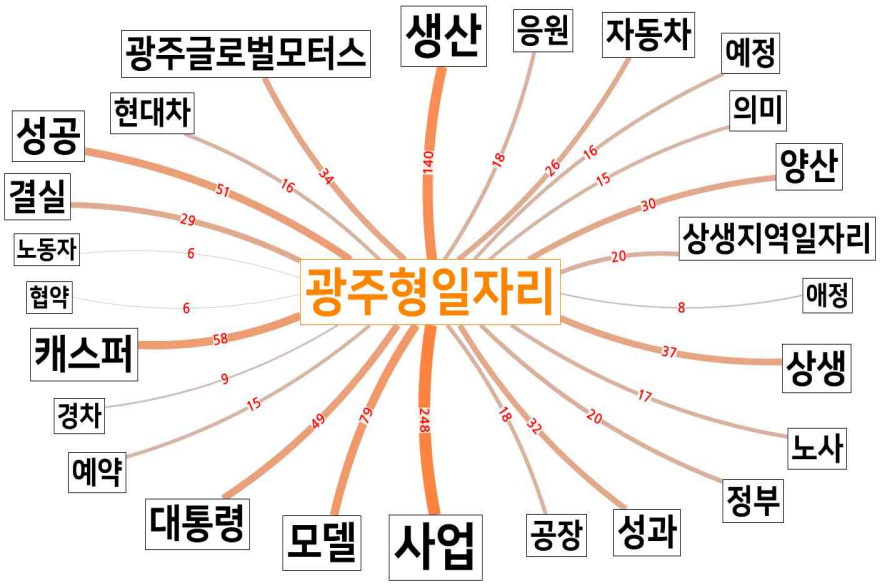


주요단어 : 파산(316), 사태(190), 부동산(116), 디폴트(106), 유동위기(58) 등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의 막대한 부채와 유동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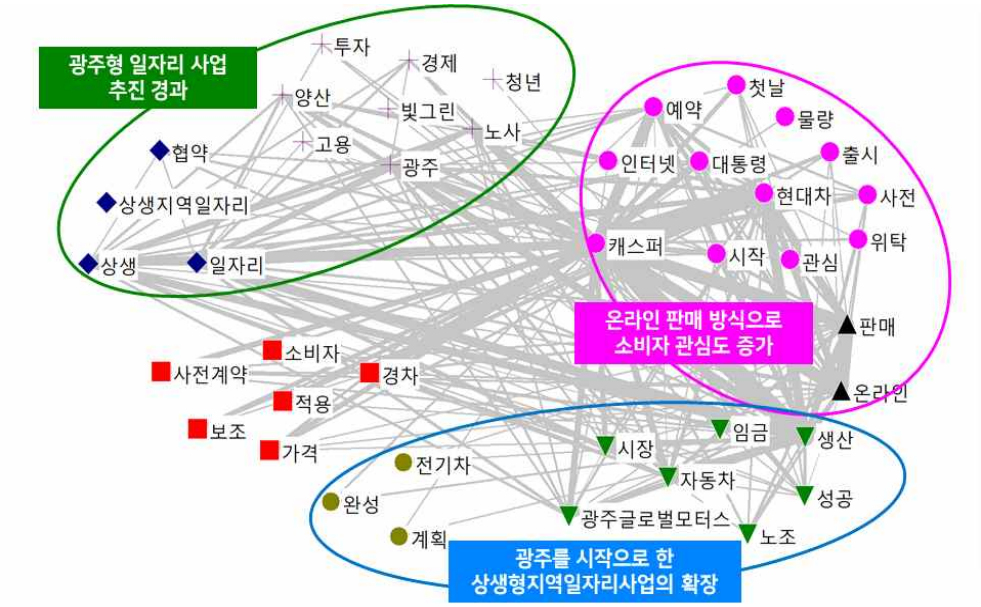


주요 주제 :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우려와 미국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광주형일자리



주요단어 : 사업(248), 생산(140), 캐스퍼(58), 상생(37), 성과(32)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양산차 생산 시작과 기대 및 전망



주요 주제 : 생산 차량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타 지역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내용

※ 분석 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27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고용 : 2021년 8월 대구 경북의 고용 상황 진단

<연관 검색어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백신접종률, 재난지원금>

▌대구 취업자 증가, 경북 취업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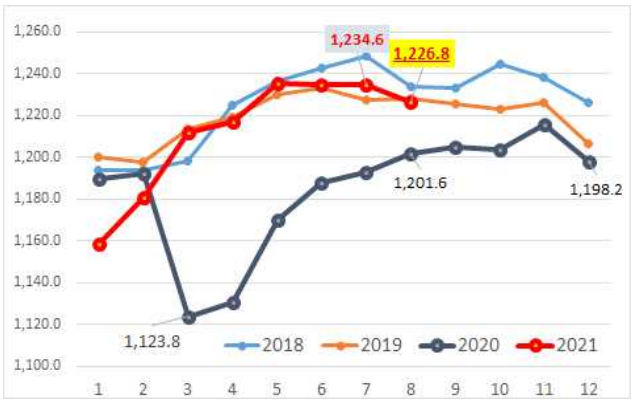
○ 2021년 8월 대구광역시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경상북도 고용률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15~64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대구 고용률 : 66.0%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경북 고용률 : 66.0%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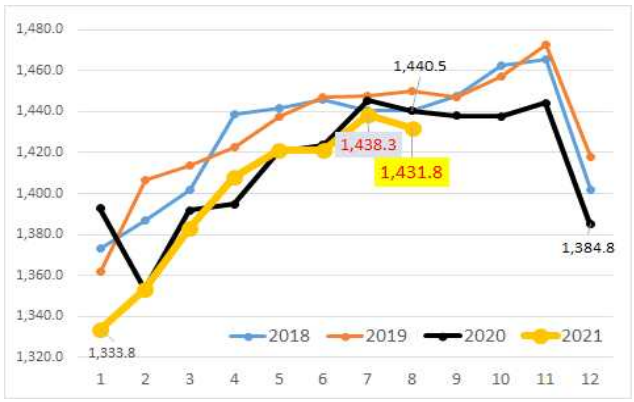
○ 대구 취업자는 122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 명 증가, 경북 취업자는 143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천 명 감소

- 대구는 전년동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만 2천 명), 제조업(1만 4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천 명) 부문은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은 동일하였으며, 농림어업(-2만 1천 명), 건설업(-1만 1천 명) 부문은 감소
- 경북은 전년동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천 명), 농림어업(4천 명)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1천 명) 부문은 동일하였으며, 제조업(-8천 명), 건설업(-6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 명) 부문은 감소**

대구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주 : 대구와 경북은 경제 및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코로나19 전후 취업자 추이가 다르게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대구경북, 실업률 및 실업자 감소

○ 대구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북 실업률은 1.5%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

- 대구 실업자는 3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천 명 감소, 경북 실업자는 2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만 5천 명 감소**
- 전년동월에 비해 대구의 남자는 2만 3천 명으로 1천명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1만 3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하고, 경북의 남자는 1만 6천 명으로 1만 4천 명, 여자는 5천 명으로 1만 1천 명 각각 감소

○ 대구 비경제활동인구는 82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 감소, 경북은 85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 증가

- 전년동월에 비해 대구 남자는 2천 명, 여자는 1만 7천 명 각각 감소하고, 전년동월에 비해 경북 남자는 1만 6천 명, 여자는 6천 명 각각 증가

▌여타지역과 비교

○ 2021년 8월 기준 전국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여 고용지표는 2020년 보다 호조세

○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울산 제외), 실업자는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부산(1만 9천 명)과 대구(1만 9천 3백 명)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증가

○ 2021년 8월 기준 경북을 포함한 9개 광역도는 취업자가 증가(경북 제외), 실업자가 감소(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대체로 감소[충북·제주 소폭, 경북(2만 1천 4백 명)은 대폭 증가]

○ 전국 광역시도의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변화는 그 지역의 경제특성과 산업구조 및 코로나 방역 효과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지역별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지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20		2021.08		2020		2021.08		2020		2021.08	
	취업자	전년대비 증감	취업자	전년동월 대비증감	실업자	전년대비 증감	실업자	전년동월 대비증감	비경인구	전년대비 증감	비경인구	전년동월 대비증감
전체	26,904.3	−218.4	27,602.7	518.0	1,107.9	44.5	743.7	−120.3	16,772.8	455.3	16,757.7	−106.2
서울	5,051.4	−34.8	5,053.2	−29.5	241.1	8.1	209.5	33.5	3,223.3	64.7	3,267.5	0.7
부산	1,639.7	−35.9	1,691.4	46.3	71.8	6.6	39.2	−24.3	1,236.6	17.6	1,219.0	−19.0
대구	1,184.3	−34.9	1,226.8	25.2	47.7	0.8	35.7	−3.3	858.7	20.6	827.9	−19.3
인천	1,559.7	−21.2	1,577.6	1.6	74.4	2.5	46.2	−12.4	909.7	33.9	923.3	13.1
광주	747.5	−2.0	751.1	4.0	30.1	1.2	19.2	−4.2	496.7	10.5	510.0	4.6
대전	780.3	8.4	800.6	13.3	35.6	1.6	15.2	−12.9	470.6	−14.4	472.8	2.8
울산	560.3	−11.0	558.0	−3.1	24.8	−0.1	12.6	−5.7	379.3	8.9	390.0	5.2
세종	179.7	12.1	188.3	2.9	5.1	0.5	2.4	−2.4	102.0	6.2	105.6	7.3
경기	6,908.5	−43.2	7,237.8	350.4	284.5	10.3	201.0	−44.1	4,262.7	254.3	4,284.1	−61.2
강원	794.7	−16.5	841.3	21.3	32.5	2.4	19.3	0.4	480.2	18.6	457.5	−11.7
충북	890.0	9.9	914.0	16.8	29.3	1.6	16.0	−10.8	489.3	−2.6	487.2	2.1
충남	1,176.2	−19.7	1,227.8	21.6	42.2	6.8	14.0	−11.6	666.5	19.5	651.3	−1.2
전북	932.1	4.6	968.6	26.1	23.7	−2.0	15.9	0.4	599.6	−10.0	571.1	−25.2
전남	974.1	0.4	1,000.3	18.0	23.6	−1.9	13.2	0.7	527.8	−8.2	510.2	−18.7
경북	1,418.4	−11.7	1,431.8	−8.7	59.8	1.5	21.3	−24.9	842.2	12.5	855.5	21.4
경남	1,729.3	−19.4	1,753.3	9.6	72.3	3.6	55.7	0.1	1,052.1	15.5	1,044.4	−8.9
제주	378.1	−3.6	380.9	2.2	9.6	1.3	7.3	1.1	175.5	7.6	180.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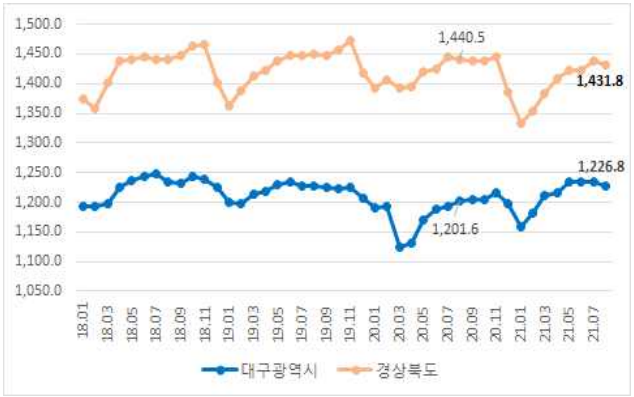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대구경북의 고용 동향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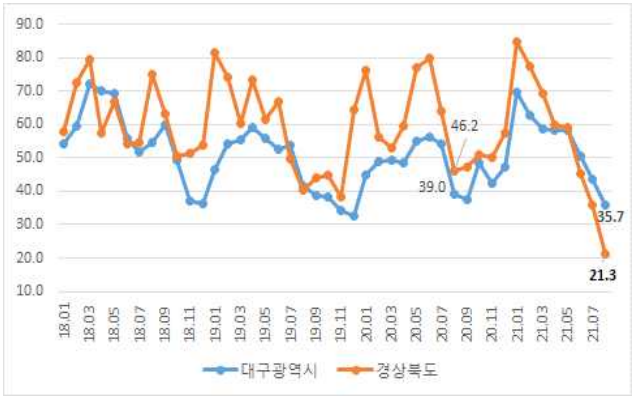
○ 대구는 취업자 증가, 실업자와 실업률은 감소

- 대구의 경우 코로나19의 발병이 2020년 취업자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기저효과와 실물 경기 호조로 2021년 현재 취업자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실물경제 진전이 노동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예방접종 및 거리두기 완화 영향) 일자리 지속증가에 대한 불확실은 상존
- 인구가 밀집한 도시 특성을 가진 대구는 코로나가 일자리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 2020년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1년 이후 회복되는 추세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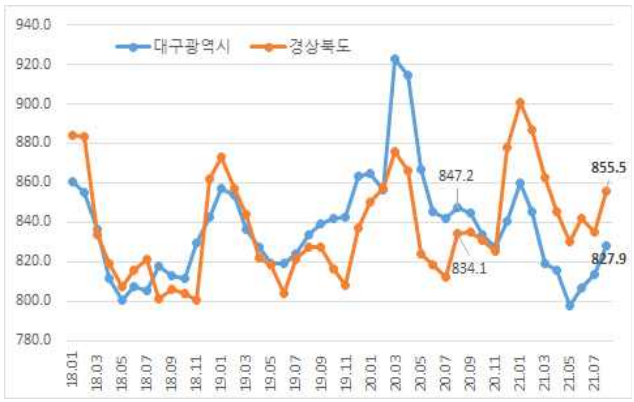


실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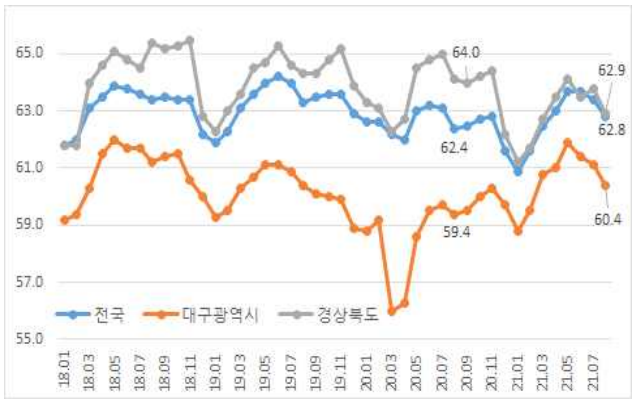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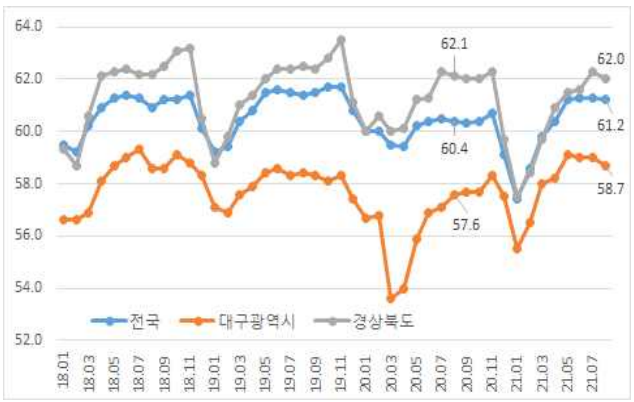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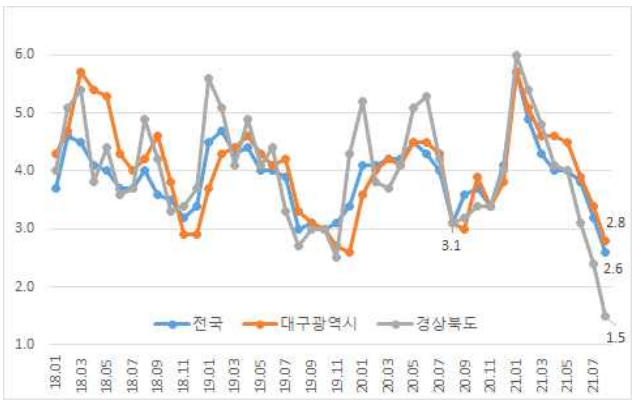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고용률 추이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경북은 취업자, 고용률 감소,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경북은 취업자도 감소하고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거나 남아 있는 반면, 대구는 감소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연결되었기 때문임
- 경북의 2021년 이후 추세를 보면 1~7월까지 취업자 증가, 실업자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세 등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꺾이고, 실업률은 보다 하락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로 전환

※ 참고 :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인구)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이 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넓고 광범위한 공간과 제조업과 농산어촌을 포함한 경제 및 산업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코로나19의 다소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지역 관광 등 도소매 숙박업의 회복 정도가 더딘 경향이 있음(수도권 및 도시 지역과는 다른 특징)
- 경북은 8월에 (상대적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이 많이 하락하고 고용률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증가(앞의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참고)

▌맺음말

○ 8월 대구의 고용 지표는 호조, 경북은 취업자 감소가 있었지만 실업자가 보다 많이 감소하여 고용지표는 중립으로 진단

- 대구의 경우 고용률과 취업자 증가,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호조세였지만, 경북은 취업자가 다소 감소, 실업자 대폭 증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202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대구의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
- 경북은 2021년 1월 이후 계속 증가하던 취업자가 8월 이후 꺾인 만큼 이후의 상황을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전체 경북의 월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이전 년도들과 비교하여 나쁘지 않으며, 2021년 8월의 경우 취업자가 소폭 감소(8천 7백 명)하였지만 실업자는 보다 더 대폭 감소(약 2만 5천 명 감소)

○ **실물경기 회복이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이지만, 코로나의 불안은 여전히 상존**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실물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변이 코로나 및 돌파감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8~9월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가에 따른 감염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고, 음식 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가 일부 나타남(대구 경우, 경북은 그렇지 못함)
- **음식 숙박업은 대구 중심으로 개선되었다가 향후 위드 코로나 등의 정책으로 관광 등 인구이동이 보다 자유로울 경우 경북도의 자영업에서 일자리 호조세가 예상**

※ 경북은 관광 관련 자영업 및 도소매업 지원에서 거리두기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정책 초점을 두고,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역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지원 대책(실업 및 취업대책)이 중요할 수 있음

-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는 있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이 아직 실물과 취업자 변동에 영향을 미침

○ **백신접종률 확대와 거리두기 완화가 향후 경기 변동에 중요 변수**

- 바이러스 변종 발생에 따른 불확실이 상존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활성화도 주춤하지만, 백신접종 확대가 대구경북지역 경기 호조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일자리 증가에도 좋은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는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조치와 백신 접종을 통한 불확실성 증폭 완화가 중요 관건

- **9월 이후 취업자 증가는 다소 둔화 되겠지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활성화정책, 내년 선거 효과로 9월 이후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는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

2. 헝다 그룹 : 헝다 그룹 위기, 경제 위기로 이어지나?

<연관 검색어 : 헝다 그룹, 부동산, 부채, 공동부유, 금융시장>

▌현황

○ 헝다(恒大, Evergrande) 그룹 개요

- 헝다 그룹은 중국 선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1~2위의 부동산 개발사
- 2021년 기준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를 기록한 헝다 그룹의 자산 규모는 약 2조 위안(약 367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자인 쉬자인은 2017년 중국 최대 부호에 등극
- 부동산 개발 사업 외에도 헝다물산, 헝다자동차, 헝텐네트워크, 헝다자산운용, 헝다어린이월드, 헝다헬스, 헝다생수, 광저우 에버그란데 등을 운영

○ 부채에 비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헝다 사태 시작

- 헝다 그룹은 부동산 개발에서 시작, 금융, 전기차, 네트워크, 헬스케어, 스포츠, 식품 등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가 축적
-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합계는 1.97조 위안(약 362조 원)인데 반해 현금성 자산은 868억 위안(약 16조 원)에 불과
- 매달 지불해야하는 이자 지급도 힘든 상태로 파산 위기 지속 : 9월 23일 이후 12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자 액수만 5.3억 달러(약 6천 278억 원)에 달하는 상태
- 이미 9월 23일과 29일 지급해야했던 달러채 이자 1억 3천 1백만 달러의 지급 실패
-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그룹의 주식은 올해 들어 9월 30일까지 79.1% 폭락[2)]
- 헝다 그룹은 다양한 자회사와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실물 부동산으로의 상환 등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 중[3)]

▌영향

○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4)] 경제 정책이 헝다 사태 발생에 영향[5)]

- 한편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제조업 육성 등으로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노력
- 방주불초(房主不炒,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기조를 강조, 2016년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 2020년 8월에는 3대 레드라인(① 선수금 제외 자산 부채 비율 70% 이하 ② 순부채비율 100% 이하, ③ 현금자산/단기부채 비율 1배 이상 유지)을 제시하였고 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규모 제한
- 몇몇 부동산 개발 기업과 마찬가지로 헝다 그룹도 3개 레드라인을 모두 넘어선 상태임에도 확장적 정책을 지속하면서 심각성이 빠르게 확산

▌대응

○ 헝다 그룹 사태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 헝다 그룹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기업은 이미 경영개선을 통해 중국정부의 기준에 맞추어가고 있는 등 중국정부의 부동산 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헝다 그룹 사태가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회사채 부도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무질서한 파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헝다 그룹의 파산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헝다 그룹 사태가 대규모 금융시장 사태로 전이되지는 않을 전망[6)]

---

2) 조선일보, 2021.10.4. “中 헝다 그룹, 홍콩 거래소서 주식 거래 정지…자회사 매각설”

3) 미래에셋증권, 2019.09.27. “헝다 그룹 파산할까?”

4) 2017년 시진핑이 다시 주창한 ‘양극화와 빈곤이 없는 보편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

5) KB증권, 2021.09.27. “헝다 그룹 사태와 공동부유의 연결고리, 中 부동산 시장 점검”

○ 그럼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투자나 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 급격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

6) 삼성증권, 2021.09.17. “헝다 파산위기와 향후 시나리오”

3. 광주형일자리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추진과 기대효과

<연관 검색어 : 광주형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캐스퍼>

▌현황

○ 광주형일자리[7] 사업 추진을 통해 첫 신차 양산

-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사업 결과로 첫 번째 신차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생산
-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9월 15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돌입
-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지역 단위 노·사·민·정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2년여만의 결과



자료 : 한국경제, 망할 거라던 기득권 노조 벽 뚫고…광주모터스 '無파업 공장' 시동, 2021.09.14.

▲ 광주글로벌모터스 연혁 및 주주 구성

○ 광주형일자리 추진배경

- 한국의 자동차산업 등 일부 고임금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국내 투자기피 요인이 되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옴
-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과 방안이 필요했음
-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킬 광주형일자리를 구상하여 추진하게 됨

○ '캐스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폭발적

- 타 유사 차량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 보유
- 불필요한 인건비 감액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
- 14일 하루 동안 온라인 사전 예약 대수가 1만 8,940대, 올 연말까지 생산 예정 물량 1만 2,000 여대

▌영향

○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변화 예상

- 고용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서 안착
- 현재까지 539명을 직접고용(이 중 20대가 절반 차지)
- 연 10만대 생산 기준으로 직접고용은 1천여 명, 간접고용 효과는 1만 1천여 명에 이를 전망

7)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https://www.gwangjujob.org/index.php?cate=001001)

○ 전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산 기대

- 2019년 1월, 제1호 광주형일자리 타결 후, 총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8]이 체결, 이 중 5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광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 9월 현재 8,600억 원 투자, 1,140여 명 고용
- 각 지자체 사업 마무리 시 약 1조 8,500억 원 투자, 일자리 창출 3,900여개 정도로 예상

▼ 전국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황 및 실적

지역	주요내용	투자실적	고용실적
경남 밀양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단 조성	278억 원	63명
강원 횡성	초소형 전기차 생산	433억 원	157명
전북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2,009억 원	352명
부산	전기차 구동유닛 핵심기술 원·하청 공유 및 국산화 추진	1,090억 원	71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대응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산업 간 연계에 의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소비로 연결되는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 각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 및 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

○ 단발적 사업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후속 사업 추진 필요

○ 수록 내용 및 대구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전 문 위 원 : 한장협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송화영

○ 매월 발표되는 대구경제동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8) (협약) 광주('19.1월), 경남 밀양('19.6월), 대구('19.6월), 경북 구미('19.7월), 강원 횡성('19.8월), 전북 군산('19.10월), 부산('20.2월), 전남 신안('21.2월)